

균형발전 질문 잇따라

이재명 후보 지속 균형발전위, 영호남 대학생들과 간담회 “지역 맞춤 학과 개설 등 지방대 위한 정책 검토해달라”

이재명 후보 지속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두관, 송기도)가 대학생위원회(위원장 박영훈)와 함께 지난 9일과 10일 각각 호남과 영남에서 지역 대학생들을 만나 균형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9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과 10일 창원특례시 클라우드아트홀에서 연속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전북

대,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주비전대, 호원대, 경남대, 경산대, 김해대, 인제대, 창신대, 영남대, 창원대, 계명대, 부산대, 부경대 등 총 16개 학교의 총학생회 임원 및 학생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지방 사립대의 존재문제와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 문제를 비롯한 청년문제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문제 등 균형발전과 관련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김두관 위원장과 박영훈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이재명후보의 공약과 대책을 상세히 소개하며, 간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행사가 참석한 김해(전원) 경남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하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관련 심의의결 기구 수도권 청년들이 과하게 포진돼있는 점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며 “지역 맞춤형 학과 개설 등 지방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검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청년의 날을 맞이해 게시한 페이스북 메시지를 나가기 위해 전국 어디든 달려가 이야기를 들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청년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9일 청년위원회 출범식 이후, 릴레이 지방투어 간담회를 여는 등 청년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김두관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 어디든 달려가 이야기를 들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청년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이재명 후보 지속 균형발전위원회가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지난 9일과 10일 각각 호남과 영남에서 지역 대학생들을 만나 균형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희망의 씨앗 뿌리고 결실 누리도록”

민중 교육대전환 전북본부 출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의 ‘교육대전환운동 전북본부’(상임대표 김희수·정우식)가 지난 9일 전북도청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힘차게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김희수 도의회 교육위원장과 정우식 교육시민단체 대표가 각각 당과 시민사회를 대표해 상임대표로 임명되었다.

이를 비롯해 도와 17개 시·군본부 대표 등으로 임명된 학부모와 교육시민 활동가 60여 명이 참석해 힘찬 결의를 다졌다.

교육대전환위원회 중앙본부에서는 강승규 상임고문, 윤영덕 상임부위원장, 광주동구남구갑 국회의원, 김명신 추진단장, 반상진 정책단장 등이 참석해 축하사를 통해 격려했다.

김희수 상임대표는 “17개 시·군에 빠짐없이 구성된 전북본부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교육대전환 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우식 상임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좋은 텃밭에 우리가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아이들이 풍요롭게 그 결실을 누리게 하자”며 교육대전환을 역설했다.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 실행을 총괄하는 반상진 정책단장(전북대 교수)은 교육공약을 설명하며, “교육대전환



운동본부가 각 지역 교육의제를 상향식으로 수립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책이 끊임없이 진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접수로 한 줄 세우는 교육을 버리고 아이들이 가진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를 살려내는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 ▲영유아와 초·중·고·대 학과 평생학습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차별 없이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학교와 마을이 소통 협력하며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교육 생태계와 마을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더 많은 시민 학부모 교육주체들과 함께 전북 각 시·군에 교육대전환운동본부를 세우고 교육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 ▲이재명 후보가 성공한 교육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유호상 기자

“한중 저변확대 노력”

민중 김윤덕 의원

전주 한중협회와 간담회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전주시 갑)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주시 한중협회 관계자들과 한중 저변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한중은 전북농인 투호와 국궁, 서양의 양궁과 다트의 장점을 살린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생활체육이다.

양궁 운동을 통해 좌우 집중력과 팔의 유연성 및 근력을 키우고 신체의 평형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이다. 표적관에 왼손 오른손 각 5회 투구해 점수 합산방식으로 진행된다.

표적판 하나만 있으면 좁은 실내에서 누구나 쉽게 게임 진행이 가능하고, 노인정 등에서 어르신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다.

특히, 어르신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시 한중협회의 기동환 회장은 “전주시 한중협회는 3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화합에 좋은 생활체육이다”며 “특히, 노인정, 복지관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치매 예방 효과와 정신 건강에 매우 좋은 운동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중이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의원은 “전주시 시정배 한중 대회 개최 등 한중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며 “한중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6·1 지방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의료산업·농업 중심 남원’

이상현 전 도의회 부의장, 남원시장 출마 선언

이상현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10일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대 품안의 공약을 발표하며 남원시장 선거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출마자의 5대 품안의 공약은 ▲민생경제채널기 ▲의료산업의메카 ▲생태관광전국번지 ▲건강한교육복지 ▲농업중심의 남원 개척이다.

이상현 출마자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먼저 살려낼 것이며,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하고 2층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겨 정기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장실 확대 운영을 통해 남원의 주인인 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시책 추진 시급”

최영규 도의원, “도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수 해마다 늘어 기존 재개발·재건축 한계, 단점 보완 정비사업 활성화 해야”



원화할 수 있게 해 소규모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총 32개소(전주 27, 군산 1, 익산 1, 정읍 3)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대부분 작년(재개발·재건축 10년 → 소규모주택 정비 4년)할 수 있도록 행정철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만으로 도시 곳곳에서 급속하게 노후되고 있는 저층주택을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곳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정비하고, 나머지 소규모로 정비사업이 가능한 곳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노후 저층주택을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경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영규 의원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민 입장에서 주택공급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지역건설업체들은 신규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전라북도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유호상 기자

“독자권역으로서 전북 몫 찾기 총력을”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올 주요업무 청취

전북도의회 제3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영근)는 10일 제38회 임시회를 맞아 전북도 강승구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영근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제3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전북도로부터 ▲전북도 강승구 특별발전전략, ▲전북 몫 찾기, ▲전북 금융센터 건립과 금융산업 육성,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상생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했다.

오영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 주도로 지방자치단체개발원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개소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언

급하며,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 행정과의 협력을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은 “공공기관 유치와 실질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집중으로 인해 인근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여차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희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은 “전북 혁신도시 금융센터 건립이 자금 문제로 차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예산 조달 계획을 점검하고, 전북이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대선공약 사업 발굴”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제3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10일 제38회 임시회를 맞아 전북도 강승구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도의회, 전북지방법무사회 협약 체결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와 전북도 지방법무사회(회장 이형규)는 10일 도의회 의정실에서 전북도민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송지용 의장을 전북도 생활법률 지원단장으로 위촉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도 생활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북도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을 도내 각 시(동)·군(면)별로 ‘우리동네 법무사’로 배정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민들의 법률지식을 높이기 위한 생활법률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주지방법원 설치 촉구 활동도 펼쳐기로 협의했다.

송지용 의장은 “도민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전북도지방

/유호상 기자



“세대당 30만원 지급 지역경제 숨통 열자”

유창희 전 도의회 부의장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전주시민 세대당(3인기준)30만 원씩을 지원하고,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 지역경제의 숨통을 열자고 제안했다.

유 전 부의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들은 지쳐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라며 “시장에 당선되면 세대당(3인기준) 30만 원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에 지진 시민들을 위로하고 숨통이 막혀 절망에 빠진 전주경제를 살리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요예산으로 670억 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내놓았다. 전주시민 29만8,000여세대(2021. 12월 현재)에 세대당 30만 원씩을 지원할 경우 소요 예산이 670억 원 정도인데, 추경예산을 통해 순세금인정과 지역개발비에서 예산 일부를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지출예산에서 나머지를 확보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서 24시간 영업제한을 풀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3차 접종자의 24시간 영업제한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의 확산추세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감소 추세인 만큼 이들에 대한 시간제한을 풀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자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